

원인 불명 질병유행, 세심한 관찰 요망

- 초기에 발견해야 치료효과 높아, 치료시 마치는 금물 -



유 일 준 수의사
유일동물병원장

9월. 한달 내내 가뭄이 지속되었고 뉴질랜드로부터 절편녹용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초유의 양록인 꺾기대회도 있었다. 꺾기대회가 있던 날 미국에서는 마치

영화에서나 보았음직한 항공기에 의한 세계 무역센터 테러가 있었다.

금년에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번식철이 시작되면서 숫사슴 중 특히 엘크 숫사슴에서 발굽질병이 많이 발생됐다. 9월15일 이후에는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질병이 주로 엘크 숫사슴에서 발생되었는데 9월20일과 9월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폐사된 숫사슴(엘크)을 부검하여 sample(샘플:표본)을 채취하여 갔으나 여러 날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성감정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물론 수의학적으로 병성감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질병도 있지만 어떠한 병원체의 경우(예를

들어 마이크로푸라즈마 같은 질병은 병성감정을 하는데 최소한 30일 이상이 걸림)는 감정에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니 답답함이 가중될 뿐이다.

번식철에는 숫사슴은 먹이를 거의 먹지 아니하고 오줌을 자주 뿌리며 소리를 지르고 사슴우리를 녹각으로 들이받는 한편 움직이는 사물은 공격하려드는게 통상이다. 따라서 번식철 질병은 교배중인 숫사슴에서 증상이 먼저 보이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질병은 증상이 처음에는 하루나 이틀정도 사료를 먹지 아니하고 약간의 음수는 계속된다. 그러나 운동을 기피하고 잘 움직이지도 아니하며 약간 귀가 아래로 처지는 것이 특징.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흐르나 혀로 자주 핥기 때문에 발견이 안되기도 하나, 자세히 관찰하면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것을 알 수가



▲ 현재까지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질병은 특성상 발굽질병으로 오인하기 쉽다.

있고 입에서도 맑은 침을 방울방울 떨어뜨린다. 이때 숫사슴을 몰아보면 어떤 것은 쇠쇠거리며 공격자세를 취하기도 하나, 많은 경우에는 텃비지 아니하고 피한다. 이때 생식기 주위를 살펴보면 정상적이라면 축축하게 젖어 있어야 하는데 젖지 아니하고 대부분 말라 있다. 그리고 1회 소변량이 많고 거품 또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분변 배설은 거의 없는 반면 한번에 배설하는 오줌의 양은 많고 오줌 눈 자리에 하얀 거품이 많이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때 까지만 해도 축주는 '숫사슴의 컨디션이 뭔가 안 좋은가'라고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이 상태에서 10~24시간이 지나면 발 하나를 절게 되는데 마치 갑자기 발굽 질병이

왔거나 교배과정에서 발을 삐끗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 많은 축주들의 이야기를 청취해보면 '그저 발을 다쳤으려니'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병의 특징적 증상이다. 하나의 발을 절기 시작하고 10여 시간이 경과하면 대부분의 경우 두발이나 세발을 더 심하게 절며 더욱 침울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게 된다.

호흡은 빠르고 귀는 더 아래로 늘어지며 입가에 차이는 있으나 하얀 거품이 묻어 있다. 또한 대변 배설이 거의 없으나 적은 수의 경우에는 대변을 뭉쳐 배설하나 그 모양은 뭉쳐져 있고 뭉쳐진 배변에는 노란색 내지 갈색의 장점액이 많이 섞여 있고 냄새는 악취가 대단히 심하다. 이때도 먹이는 먹지



▲ 사슴 보정방법을 설명하는 유일준 필자

아니한다. 호박, 건초, 고구마, 사과 등은 주어도 먹지 않으며 물은 조금씩 마신다. 이때에는 운동장에 드러누워 잘 일어나지도 않고 앉은 채로 오줌을 누며 되새김은 전혀 없다. 여기에 이를때까지의 경과 시간은 (사슴이 뭔가 컨디션이 좋지않구나하고 느낄 때부터) 대개 하루 정도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호흡은 더욱 빨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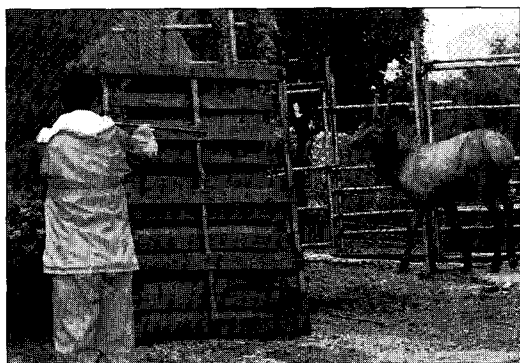
본 병은 급성으로 진행된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 질병치료를 위해서는 대증요법을 하게 되는데 전혀 호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화만 거듭하게 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상태에 까지 발전하면 치료는 불가능하다. 다만 초기나 중기에 엔로푸록사신, 해열진통제, 수액, 영양제를 3일 정도 투여하면 효과가 있다. 이는 금번 치료를 실시하며 얻어진 경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병이 급성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즉 발병이 발견된 후 2~3일 이내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손을 못

쓰다가 한두마리가 폐사한 후에야 긴장된 축주는 사슴을 자세히 관찰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때부터 축주는 새로 발병된 사슴을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의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죽은 사슴은 사후 강직이 대단히 빠르며 위장 내용물이 적어 가스(GAS)가 별로 생기지 아니한다.

부검을 해보면 폐에 부종, 충혈, 출혈이 있음을 확연히 볼 수 있고 소장과 대장에는 점점이 출혈이 관찰된다. 대장내에는 배설되지 아니한 대변이 많이 차 있다. 그 외에는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본 병은 증상이 심한 상태에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였고 초기나 중기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장이나 크러쉬를 이용하여 마취를 해서는 대부분 결과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에는 물이장이나 크러쉬가 없어 치료를 위해서는 물이장을 급조해야 했기 때문에 진료에 많은 시



▲ 호흡장에서 마취는 금물



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그로 말미암아 필자는 물이장을 급조하기 위해 금속파이프로 물이장을 만들어 줄 것을 진료 출발전에 축주에게 요구하였고 때로는 진료차량에 금속파이프 조임용 크립을 싣고 다녀야 했다.

치료중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사슴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것이다. 심하게 흥분하면 흥분자체로 인한 호흡장애가 심각하게 발생, 치료전 또는 치료중에 죽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안정을 유지하며 보정한다는게 정말 어려웠다. 특히 호흡장애로 말미암아 보정을 위한 방법으로 마취는 금물이었음을 치료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병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치료효과가 있는 약제를 통하여 추정해 보면 마이크로푸라즈마가 아닐까하고 추정해 본다. 이 추정도 빛나갈 수 있을 수 있다.

본 병에 대하여 치료경험을 통해 얻어진 바에 의하면 질병의 진행형태가 급성으로 진행되는데 반해 증상이 발정기에 발생하므로 발견이 용이치 못한 점이 있다. 치료 시에는 발병초기나 중기에 치료를 시행하면 치료효과가 있으나 질병증상이 심화되거나 심각한 지경에 이른 사슴은 거의 치료가 불가능했고 치료를 위한 보정시 물이장이나 크러쉬를 이용해야지 마취를 통한 보정은 바람직하지 못했다. 특히 채혈시 혈액이 붉지 못하고 검은색인 것은 거의 예



▲ 금번 유행하는 질병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는 엔로프록사신, 설파제, 영양제 등

후가 불량했다.

치료약제로는 엔로푸록사신, 설파제, 해열진통제, 영양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 항생제로 페니실린이나 테라마이신은 효과가 없었다. 본 병에 대한 병성감정이 정확히 나온 후에야 만이 본 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것이다. 지금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안국양**

〈필자 연락처 011-423-5297〉

본 병에 대하여 좋은 치료 예가 있는 경우 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병의 증상으로 비추어볼때 광우병, 만성소모성질병(CWD), 탄저기중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나 침을 흘리고 발을 저는 것으로 보서는 구제역도 의심이 가나 구제역의 특징인 구강 내에 또는 제엽에 수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